다산포럼

조영철

서브프라임 사태 후, 시대가 바뀌고 있다

인터넷 사회과학 연구 네트워크(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에서 논문 다운로드 회수 1위인 학자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젠센(Michael C. Jensen)이다. 젠센 교수의 논문 다운로드 회수는 무려 31만4천여 건으로 2위인 22만6천여 건의 유진 파마(Eugene Fama)를 월등히 앞서고 있다.

젠센은 금융 자유화와 주주가치 경영을 주장한 신자유주의의 핵심 이론가이다. 그는 1980년대 미국의 금융자유화정책을 두고 미국 역사의 오류였던 1930년대 뉴딜 포퓰리즘을 개혁하는 안티뉴딜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는 뉴딜정책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재정 확대와 노사관계 개혁 정책이라고 알고 있지만, 젠센은 뉴딜정책의 핵심이 금융자본에 대한 국가통제에 있으며, 1980년대 금융자유화는 뉴딜 포퓰리즘 오류를 시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보았다. 젠센의 지적은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1980년대 안티뉴딜이 미국·영국 등에서 신자유주의를 확산시킨 전환점이었다면, 외환위기는 한국에서 1997년 체제라는 신자유주의 소유자사회를 확립하는 역사의 변곡점이었다. 현대자본주의에서 소유자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자산계층이다.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은 소유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곳이며, 금융이 규제를 받던 시기에는 이들 금융자산계층의 발언권도 약했다. 그러므로 금융자유화 이후 돈이 곧 권력이 되는 소유자사회로 변한 것은 금융 규제완화 정책의 당연한 결과다.

이윤 창출이 교역이나 상품 생산을 통하기보다는 점점 금융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상을 경제의 금융화라고 한다. 금융자산소득을 금융회사의 이윤과 비금융부문의 이자소득의 합으로 계산할 때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금융자산소득 비중은 1960~1970년대에 비해 1980~1990년대에 대체로 증가했다. 특히 금융자유화와 신자유주의를 주도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금융자산소득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총생산 대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1995년 6.2%에서 2005년 7.5%로 증가했는데, 이는 2005년 일본 6.3%를 능가하고 금융선진국 영국 8.2%, 미국 7.8%에 근접한 수치이다. 더욱이 전 산업 영업잉여 중 금융보험업 영업잉여의 비중은 1995년 6.2%에서 2004년 15.3%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산업의 영업잉여 비중이 급증한 것은 금융산업의 독과점화와 함께 더 높은 금융수익률을 요구하는 금융자산계층의 발언권과 사회경제적 영향력의 강화에 따른 것이다.

케인스(John M. Keynes)는 금융시장이야말로 군중심리의 영향을 받는 불완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경제 안정을 위해 국가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케인스는 유동성과 고수익성을 추구하는 금융자산계층의 속성 때문에 생산적인 기업 투자가 축소되고 금융자산·부동산·금 등 투기적 투자가 범람하는 등 투자 방향이 오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플레이션과 완전고용정책에 대한 금융자산계층의 적대감으로 인해 실물투자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로 케인스는 금융자산 수익률 증대를 원하는 금융자산계층의 요구에 반대했고 금리소득계급의 안락사가 필요하다는 은유적 주장을 펴기도 했다.

최근 미국경제가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미국 경제계와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서브프라임 사태를 보면서 미국경제의 연착륙 여부와 세계경제 파급 정도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은 세계 역사의 흐름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의 도도한 흐름은 젠센이 말했듯이 자본시장과 금융자유화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바로 이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인터넷과 교통기술의 발달, 정보화시대 등 신경제를 치장했던 온갖 가설들로 우리를 유혹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는 군중심리의 영향을 받는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며, 금융자유화와 신자유주의의 신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국회 산업예산분석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아동대상 범죄예방 시스템 시급하다

지난해 말 크리스마스에 실종됐던 경기도 안양 두 여자 어린이가 결국 참혹하게 살해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0년과 2001년 1년 사이에 비슷한 장소에서 일어난 강진 여자 초등생 실종사건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15일 강진 동초교 2학년이던 김성주(당시 6세)양이 하굣길에 실종됐다. 또 김양이 실종된 지 1년만인 2001년 6월1일 강진중앙초교 1학년이던 감하은(당시 7세)이 하교 후 집 부근에서 사라졌다. 이들 두 어린이 실종사건은 7~8년이 흐른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이들 부모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을 것이다. 어린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 역시 불안하기만 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없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어린이 실종·유괴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분노하며 그것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어린이 실종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8천600여명의 미아가 발생해 이 가운데 59명이 부모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실종상태로 남아 있는 어린이는 108명에 달한다.

아동 상대 범죄는 한 가정의 붕괴를 가져오고 사회의 안정성에 대한 큰 불신을 가져온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경찰에 어린이 대상 범죄 전담부서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어린이 대상 범죄는 비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강진 초등생 실종사건 역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진실을 하루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학가 졸업앨범 '뒷거래' 뿌리 뽑아야

졸업 앨범 제작을 둘러싸고 '검은 거래'를 해온 광주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장과 업자 등이 무더기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사진업자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졸업 앨범 계약을 체결한 총학생회장 8명 등 16명을 입건했다. 소문으로 떠돌던 대학가의 금품수수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경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파악한 리베이트만 모두 6천여만원에 달한다. 총학생회는 1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사진업자에게 기존 업자보다 많은 리베이트를 요구하며 때론 업자를 교체하기도 했다고 한다. 총학생회 조직 출범 때 회식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일부는 유흥업소에서 향응까지 제공받았다니 할 말이 없다.

리베이트가 유용됐을 가능성도 크다. 총학생회장 등은 업자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총학생회 통장이 아닌 개인계좌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 '검은 거래'를 한 것도 문제지만 리베이트를 학생회 운영비 대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도덕성에 치명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뒷거래'가 관행화,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를 받은 상당수 학생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관행이 아니냐"고 진술해 담당 경찰을 당혹스럽게 했다고 한다. 경찰은 다른 대학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은 거래'의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일 수밖에 없다.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1권당 2만5천원선에 불과한 졸업앨범 값을 6만5천원까지 받았다고 한다. 2배 이상의 차액을 사진업자와 인쇄업자, 총학생회가 나눠 가진 것이다.

졸업 앨범은 총학생회가 계약 체결부터 제작, 지급까지 전담하고 있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검은 거래'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총학생회는 앨범 제작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NGO 칼럼

장식

이웃에게 전화를

벨이 두 번 울리면 호흡을 가다듬고 수화기를 든다. '생명의 전화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그냥 내려놓는다.

벨이 또 울린다 긴장하면서 수화기를 귀에 댄다. '상담하는 곳이죠"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침묵 속에 또다시 전화를 끊는다.

벨 소리에 민감한 전화상담 특성상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해야하는 상담자로서는 침묵의 전화가 겁이 난다. 마음속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데 들어 줄 사람이 없어 생면부지의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고도 입을 열지 못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벨 소리가 울리지만 상담원과 연결된 통화는 수 건에 불과하다. 친구와 이웃이 필요한 순간에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 답답함은 어떠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꾸만 병들어 가고 있는 것만 같다. 이처럼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한 채 세계화, 속도화, 물질만능주의, 능률위주, 실용주의 등에 빠져 산다.

특히 고독과 소외감이 난무하며 경제와 문화가 발달할수록 양극화는 극에 달해 누구나 싶게 친구나 이웃이 되기가 더욱 어렵다. 지난해 생명의 전화 통계에 따르면 정신건강항목 전화상담 건수는 1천105건으로 우울증 등 26%, 불안 22%에 달한다. 최근 상담 내용으로는 주부 우울증과 남편의 경제적 무능, 게임 중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혼자 외로움에 지쳐 병들어 가고 있지만 이를 달래줄 이는 없다.

이를 견줘 볼 때 생명의 전화 상담원들은 이들에게 진정한 벗이라 자부한다. 전화상담의 장점은 언제든지 피 상담자가 원할 때 곧 바로 상담을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심리적인 이동성을 가져온다. 자기 노출, 감정의 상처에서 자유롭고 편안함을 가져다주며 익명성도 보장된다.

하지만, 피 상담자가 상담원을 신뢰하지 않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는 것은 도움의 손길을 놓는 것과 같아 안타깝다. 평소 훈련을 통해 성숙한 상담원으로 거듭나야하는 우리들의 몫이기도 하다. 벨이 다시 울린다. "네 생명의 전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죽고 싶어요" "무슨 일이 그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밥도 먹기 싫어요"

상담 과정에서 그가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주변인들은 그가 자주 아프다며 호소하는 것을 보고 짜증을 낸단다. 상담을 통해 그를 달랜다. 상담 후 그의 목소리가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우울증 자살자 수가 35명에 달한다. 하지만 우울증 환자 중 20~30%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작은 관심을 가져보자. 느림의 미학을 생활 속에 담아 주변의 수다에도 귀 기울여 듣는 '관심'이야말로 그 어떤 치료보다 훌륭한 치료법이 될 것이다.

〈생명의전화 광주지부 총무〉

찰칵! 동물세상

침팬지의 심심파적

우치동물원 침팬지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몇 가지 특이한 행동을 가끔 선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사과를 씹어서 갈색의 지저분한 덩어리를 만든 후, 하루 종일 방치해 두었다가 오후에 먹는 것이다. 아마도 일종의 발효를 시키지 않나 싶은데 아직 그 술맛을 함께 맛보지는 못했다.

다음은 내실에서 각종 마른 음식물 찌꺼기와 작은 자갈, 시멘트 조각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지름 2m 정도의 둥그런 원을 만든 후 그 원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이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이교도들이 신성한 종교의식을 치르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한다.

최근 발견한 행동은 껍질 벗긴 바나나를 철창에 널어 두었다 나중에 먹기다. 3개 정도를 높은 철창 위에 나란히 널어놓고 1~2시간 후 다시 올라가서 하나씩 집어먹는 것이다.

이런 행동들에 대해 마땅한 이유를 붙이기는 어렵다. 특별히 이유를 찾자면 침팬지만의 독특한 '심심파적'행동이라고 할까.

사람도 물론이지만 동물들 역시 이상한 행동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을 필요는 없다. 말 그대로 'just fun!'(그저 재미로)인 셈이다.

이런 말을 하면 무조건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생물학자들의 원성을 살 수도 있겠다. 그럼 한번 되물어보자. 앵무새가 과연 생존을 위해서 사람 말을 흉내낸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아닐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녹음기처럼 사람이 원하는 말만 따라 해야겠지만 앵무새는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無等鼓

'쩐의 전쟁'

"돈을 좇지 말고 일을 좇아라. 그리고 성취를 통한 희열감을 맛보기 위해 원칙을 지키며 자신을 절제하라.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 올 것이다"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의 저자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조언이다. 하지만 이 금언은 보통 사람들과 거리가 먼 성공신화를 일군 그의 이상적 철학이나 허세라고 치부할 뿐, 인간들은 악행을 마다하지 않고 돈만 탐낸다.

지난해 방영됐던 드라마 '쩐의 전쟁'이 큰 인기를 끌었다. 돈에 이성이 마비되는 추악한 인간군상을 잘 그려내 높은 시청률을 구가했는데 돈 문제로 번민해 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터, 시청자들 붙잡기에는 '돈'만한 소재가 없었을 것이다. 재미를 본 때문인지 최근 케이블TV에서 같은 제목의 그 드라마를 또 선보이고 있다. 케이블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살려 아름다운 꽃이 아닌, 독이 묻은 꽃인 돈에 달려들다 결국 파멸에 이르는 인간의 모습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양이다.

그 드라마의 중심인물은 악랄한 사채업자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돈을 받아내고 마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의 연기를 통해 극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사채업자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수록 일감이 늘어난다. 돈 떼일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제도권 금융에서도 불황이 깊을수록 채권추심업은 활황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채권추심 대행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말이 점잖아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 변제촉구, 채무자 소재파악이지 그들의 행태는 사채업자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미국도 경기가 침체되면서 끊임없는 전화와 협박 등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5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급기야 미국 추심업계에서는 공격적으로 상환을 강요하지 말고 빚을 갚고자 하는 양심을 자극하라고 주문했다. '전쟁'을 하는 판에 효험이 있을지 의문이다. /기현호 경제부장 kihh@

휴면 신용카드 해지 때 연회비 환불 의무화해야

빠르면 다음달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도 휴면카드 연회비에 대해 신용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을 눈속임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대부분 휴면카드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받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회비가 빠져나간다. 반면 카드를 해지할 때 연회비 환불 사항에 대해서는 공지하지도 않은 채 슬그머니 넘어가려 한다.

필자가 신용카드 회사에 카드 해지를 요청했다고 하자. 카드사 직원은 해지 절차를 거쳐 해지가 완료되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해지에 따른 연회비 문제는 따로 말해 주지 않는 것이다. "이미 부과된 연회비가 어떻게 됐냐"며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카드사들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다. 환불 요청을 해야만 그제서야 돌려준다.

또 신용카드를 겨우 한 두달 사용한 뒤 해지할 경우 1년 연회비는 받는 것도 문제다. 연회비를 부과할 때 사용한 개월 수에 맞춰서 월 단위로 계산해 그 나머지는 돌려줘야 마땅하지 않을까.

▲홍예진·광주시 동구 대인동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점자 명함' 갖기 운동 펴자

회사 업무 때문에 일본에 갔다가 그 곳 관계자와 명함을 주고 받았다. 그 명함에는 일반 인쇄 뿐만 아니라 점자 인쇄도 돼 있었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일본인은 웃으면서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하는게 아닌가. 일본인들의 이 같은 배려와 사회적 약속에 대해 절로 존경스러움을 느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걷지 못하는게 아니라 나와 걷는 방식이 다를 뿐이며, 앞을 못보는 시각 장애인도 안보이는 게 아니라 나와 보는 방식만 다를 뿐이다'는 게 그들의 기본 마인드였다.

필자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명함을 주고 받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점자를 넣은 명함은 하나도 본 적이 없다. 우리도 일본인들처럼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공감대 차원에서 점자명함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한다.

실천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 중요하냐고 반문할 지 모르지만, 형식을 갖추면 실천은 더 충실하고 빨라질 것이라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도 당장 점자명함으로 바꿔볼 참이다. ▲강성구·광주시 동구 운림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29 정치부 2200-616 경제부 2200-617 사회1부 2200-618 〈FAX 222-4267〉 사회2부 2200-619 〈FA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육팀 2200-627 사진부 2200-690 조사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FA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